

김영록 지사, 서울~제주 해저터널 대선공약 건의

필요성 5개 제시...균형발전 앞당길 핵심사업 강조
유라시아철도·태평양 잇는 신해양시대 관문 역할

〈속보〉지역 내 서울-제주 해저터널 대선 공약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1월 25일자 1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의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7년 첫 논의 이후 15년간 답보상태였

던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대선 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의문 발표를 통해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해저고속철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며, 5가지의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유라시아철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계 구상의 출발점이자 신해양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달빛내륙철도(대구·경북·전남·광주), 경전선철도(목포·부산)와 함께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는 획기적 사업이다.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신경계권이 조성되면, 남해안과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



의 새로운 축이자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을 KTX로 연결하면 항공 분야의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미 유럽에선 기차보다 20배나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기에 대해 근거리 항공노선부터 철도망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해저고속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20대 대통령 공약으로 꼭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는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의 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언급하며 주목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이제는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와 거의 시간이 같아졌다. 이미 유럽에서는 단거리 국내 노선을 다 폐지하는 추세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내항공수요는 제주도 아니겠나. 제주도로 해저

터널을 연결하지는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을 났을 경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대기하고 내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오히려 더 빠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섬은 섬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해저터널을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은 2007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으로 고속철도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낙연 전 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논란 등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후속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용현 기자

광주경자청 1주년...전략산업 거점 발돋움

투자협약 38건 2,500억원·고용인원 1,300명

오는 27일 개청 1주년을 맞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전담 조직으로 내실을 다지고, 미래 핵심전략산업 거점을 목표로 착실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광주경자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총 47건의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 협약은 총 38건으로 목표(23건) 대비 165%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투자유치 협약은 각각 ▲AI융복합지구 9건 ▲미래형자동차지구 8건 ▲스마트에너지 지구 21건이며, 협약 규모는 투자금액 2,500억 원에 고용인원 1,300명이다. 이 가운데 부지매입 등 실제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은 19개사 475억 원으로 실투자율은 50%를 기록했다.

민선7기 1호 공약으로 추진된 광주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으로 출발한 광주경자청은 ▲투자유치 전문인력 채용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최적화된 작제 및 업무계획 수립 ▲투자유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실리콘밸리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프랑스, 독일) 가일·활동 ▲한국 주재 외국대사(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와 투자

유치 협의 진행 등 글로벌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본의 첨단재생의료계 개발업체 상그리라 바이오(J.Shangri-La Medical)을 시작으로 ㈜코맥스, ㈜디케이, ㈜노바사이징 등 38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최대규모 중국공상은행 한국법인,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오스트리아의 파워트레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1위 업체 한국AVL 등과 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 모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시스마트팜 개관식

26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4가 지하철역에서 열린 ‘시스마트팜 개관식’에서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이병훈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있다. 첨단정보통신기술로 빛·공기·온습도·양분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실내 농장인 시스마트팜은 시민들의 도심 속 주말농장·체험견학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심각”

정의당 광주시당, 대응체계 마련 촉구

광주지역 아파트 10곳 중 4곳 이상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자의 비리·부정도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위탁사항에 대한 처벌과 광주시·5개 구청의 관리 책임, 반주민적인 위탁계약 관행의 개선책을 촉구

했다.

정의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소재 전체 아파트 1,177개소 중 위탁관리를 하는 곳은 전체의 44.9%인 529곳이다. 5개 구 중에서는 광산구가 전체 285개소 중 197개소(69.1%)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동구 57.8% ▲남구 42% ▲서구 34.7% ▲북구 34% 순으로 위탁비율

이 높았다.

최근 한 달여 간 광주시에 접수된 위탁사업자의 비리·부정 제보 건수는 총 27건이었다. ▲광산구 13건 ▲북구 7건 ▲남구 4건 ▲동구·서구 각 1건 ▲타지역 1건 등이었다. 위탁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에서 제보가 가장 많았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5개 구청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한 달이 다돼 뒤늦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겨우 몇 건의 자료를 받았다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회계·관리 운영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올해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 질 높인다

150명 추가 모집...커리큘럼 조정 등 향상

지난 2020년 7월 개교부터 5.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새로 모집할 사관학교 3기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혁신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전문교육기관 등과

3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 전문인재 공급과 수요 측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수요한 27기 사관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마쳤다.

이를 통해 몰입형 집체교육이라는 사관학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커리큘럼을 확정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기간(7~10개월)이 확대되고, 더 많은 인공지능 실무인력(180→330명)을 양성하게 된다. 올해 3기 교육생은 2~3월에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전국 만 19~39세 청년이다.

사관학교를 통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무 고급인재들이 계획대로 양성되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 등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기대된다. /오선우 기자

120빛고을콜센터 설 연휴 정상 운영

시, 선별검사소·의료기관 정보 등 제공

광주시는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120빛고을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120빛고을콜센터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후 시간은 시청 당직실로 자동 전환돼 당직근무자가 안내하게 된다.

광주시내 어디서든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면 설 연휴 성묘·방안시설 운영현황, 실시간 버스이동정보, 일상화복지지원금 신청 정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 등 각종 정보를 신속

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선별검사소 운영상황, 집 근처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등 응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120빛고을콜센터는 지난 추석연휴에도 당새 동안 대중교통 안내,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등 1,058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5명의 상담사가 365일 연중무휴로 연간 26만여 건의 시청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목욕공간

물리치료실

클레이프로젝트

특별공간

-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결과 학원 114 등 추천사이트